

# 문 대통령 “새 방역체계 전환 모색”

“적극 참여 집중률 올라”  
‘위드 코로나’ 논의 속도  
정부 “유행 규모 안정 전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속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백신에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자영업)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지금의 유행 규모를 안정화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다.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with)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이를 검토하려면 코로나19 확산세를 적정선으로 억제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은 이날 출입 기자단과의 설명회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내부 논의할 때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로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정부 내에서는 가급적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안 쓰려고 한다”며 “용어 자체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는데 정확한 정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용어 자체가 확진자를 신경 쓰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앤다는 의미로까지 가끔 표현되고 있어

방역적 긴장감이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고 본다”며 우려했다.

손 반장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하려면 ‘전제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상 회복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월 동안 유행 규모를 조금 더 안정화하는 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며 “이런 전제 조건보다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쏠리면서 긴장감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입원 병상이나 중환자실 가동률을 보면 60~70% 정도 수준을 보이는 데 이런 상황에서 방역 완화 분위기가만 들어지면 유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병실 부족, 의료체계의 대응 부실 등의 문제로 직결될 위험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정부 차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 체계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중”이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의 내용과 수준이 중요한 만큼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원주 현안 듣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6일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원창목 시장으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숙고시간 필요” 이낙연 일정 취소

캠프는 비상대책 모드로  
대대적 궤도 수정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사진)가 4~5일 충청지역 경선에서 연거푸 당한 완패의 충격에 망연 자실한 분위기다.

내심 접점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던 대전·충남은 물론 세종·충북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에 과반을 내어준 데 따른 내상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6일 주요 일정을 취소한 것도 중원 2연전 대패의 ‘쇼크’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하려 했던 대구·경북 발전전략 발표는 서면 보도자료로 대체됐고, 오후 대한사회협회의의 간담회는 전면 취소됐다.

캠프 내 신국방안보특위의 지지선언 행사에는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현이원이 대리 참석하기로 하는 등 이 전 대표의 일정은 대폭 축소됐다.

캠프 관계자는 “캠프로서는 특히 충북 결과가 충격이 컸다”며 “후보께서 숙고하는 시간을 조금 갖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캠프는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캠프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내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충청 경선 결과에 따른 대응책과 향후 전략 마련을 논의했다.

캠프는 오후에 열기로 했던 ‘주간 브리핑’ 행사도 순연했는데 이를 두고는 향후 전략에 대한 대대적 궤도 수정이 가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책이나 메시지에 있어서 국민께 알리려 했던 내용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상대 후보 검증 전략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일단 캠프는 약 64만명의 국민·일당원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1차 슈퍼워크’ (12일)에서 추격의 발판을 만들고 추석연휴 이후 치러질 호남 대선에서 대역전의 기세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 홍준표, 이재명·윤석열 이어 ‘3위 진입’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 구도 속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제치고 3위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8.0%, 윤 전 총장은 26.4%를 각각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전주보다 4.2%포인트 상승한 13.6%를 기록하며 이 기관의 조사에서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 전주까지 3위였던 이 전 대표는 11.7%로 4위로 밀려났다.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4.1%),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3.7%),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2.5%),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1.6%), 정의당 심상정 의원(1.4%), 민주당 박용진 의원(0.8%) 순이었다.

법집보권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9.8%로 1위였고 이 전 대표가 18.0%로 그 뒤를 이어갔다. 박 의원(6.3%)과 추 장관(5.4%)이 각각 3~4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3.9%), 심 의원(3.5%), 민주당 김두관 의원(1.6%) 순으로 나타났다.

법보수권 적합도 조사에서도 홍 의원이 26.3%로 바짝 추격했다. 2주 전 조사에서 처음으로 20% 선을 넘긴 홍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전주 대비 0.4%포인트 상승하며 윤 전 총장과의 격차를 좁혔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관해 묻은 결과 응답자의 49.8%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2.7%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연합뉴스

## 집값 10% 내면 10년 거주할 수 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화  
10년 뒤 시세차익 발생 시  
확정 분양가 통해 수익 배분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C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

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이다.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일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 왔다.

앞서 특위는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을 제시했다. 국토부 논의 결과 집값의

10%를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갖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인 보증금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무주택자 자격만 갖추면 공급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

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확정분양가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 적용해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필요한데, 연 1.5% 상승률이면 IRR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뒤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은 확정분양가를 통해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의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다. /연합뉴스

**Cubicle Innovation**  
We will create a futuristic toilet culture

## 화장실칸막이의 모든것 중원큐비클과 함께

**화장실 칸막이 40년 노하우로 직접 생산 및 전문시공업체 다년간의 관공서, 기업체, 상가, 병원, 학교, 어린이집, 휴게소 등 시공 및 판매 경험으로 화장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 직접생산을 통한 저렴한 가격
-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 신뢰성
- 생산자 직접 시공을 통한 완벽한 시공

**전국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CUBICLE**  
[주]중원큐비클

T : (062)525-6993~4  
F : (062)525-3832  
(우)619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8

M : 010-3647-3832  
E : jwc3832@nate.com